

강남의 형성과 사회·경제 장벽의 강화

The Formation of Gangnam and the intensification of barrier

최은영(이화여대 박사후과정 연구원, cey461@snu.ac.kr)

IMF 경제 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부의 사회·공간적 불평등 문제가 한국사회의 화두로 등장하였고, 강남 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강남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와 담론이 존재할 뿐 구체적인 자료와 실제 조사에 의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강남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강남의 형성 과정과 강남이 거주지로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차별성, 이러한 강남이 재생산되는 메카니즘과 사회적 함의가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시공간적 연구범위가 필수적인데, 이는 우선 서울의 다른 지역이라는 대립 항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강남이 성립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강남은 다양한 공통의 이해관계에 기반한 수많은 사람들이 수 십년 동안 공모한 결과에 의해 이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강남은 강남개발이 시작된 1960·1970년대와 현재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분석 시기가 확장되어야 하지만 강남의 형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1960~1970년대라는 단면적 시간에 그치고 있어 강남이라는 공간을 물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적 연구범위의 확장을 위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가 형성되고 재생산되는 거주지로서의 강남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울속의 또 다른 도시인 강남의 형성

거주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에 대한 장기 시계열 분석을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2%표본 자료를 이용(1980~2000년)하였으며, 강남 거주 인구의 학력·직업 등을 서울 다른 지역 거주 인구와 시계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강남이 형성되어 가는 동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파트 가격의 차별화 과정은 부동산뱅크 자료(1986~2000년)를 통해 분석하였다.

2. 강남의 거주지로서의 차별성

사회적 자원의 공급과 할당은 개인의 삶의 기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삶의 많은 부분은 거

주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삶의 공간성은 희소자원이 공간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할 때 더 큰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 어떤 지역에 거주할 때 우리는 주택 자체의 특성 뿐 아니라 그 주택에 결합되어 있는 근린 환경을 동시에 소비하게 되는데, 사회기반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그 편의 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됨으로써 공급에서의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 강남이 거주지로서 가지는 차별성의 실체를 거주환경의 어메니티(amenity)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공원·도로망·지하철·쇼핑시설·문화시설·의료시설 등과 같은 사회기반 시설과 교육환경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GIS를 통해 구축된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간 정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따라서 도로망, 학교, 병원, 공원 등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레이어아웃을 수치지도를 통해 추출하였다. 수치지도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각종 지도와 문헌에 대한 검토 및 현장답사를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강남은 우리 사회가 자원과 자본, 권력과 기회 등을 불균등하게 배분한 계급관계 속에서 구성된 모든 면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차별적 거주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3. 강남의 재생산

IMF이후 지역별 아파트 가격의 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자기 증식적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함께 강남에서는 자녀세대의 학력자본 재생산이 매우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파트 가격과 학력자본 재생산을 통해 자기 완결적 폐쇄구조를 갖는 동질적인 거주공간을 재생산함으로써 거주지에 따라 불평등이 구조화되고 있으며 강화되고 있다.

4. 인구이동의 사회·경제적 장벽

인구이동통계조사 원자료(raw data)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차별적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는 강남으로의 인구이동에 있어서의 장벽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별 아파트 가격차가 급격하게 증가한 IMF이후 부유하지 않은 가구의 거주지 선택이 제한됨으로써, 상이한 사회·경제적 특징을 가진 지역 사이의 인구이동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하위주택시장과 관련되는 거주지의 공간적 분포는 이동자의 이동 가능한 지리적 범위를 결정짓고 있으며, 아파트 가격의 차별화에 의한 주택시장의 분절화는 인구이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